

‘대서양 연어’를 경북도에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경북도·포항시, 해수부 공모 선정 사업비 400억... 테스트베드 조성 내년 시설 완공 시 연 1000톤 생산



연어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조감도. /경북도

경북도는 7일 포항시 장기면 금곡리에서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경북도 경제부지사, 해양수산부, 경북도의회, 포항시장, 노르웨이 대사 참사관 및 관계사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은 2020년 경북도와 포항시가 해양수산부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400억 원 중 테스트베드(2만8570㎡)를 조성(300억원)하는 사업이며, 내년에 준공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배후 부지(19만5570㎡)를 조성(100억원)할 계획이다.

국내 식당, 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연어 대부분은 노르웨이가 원산지인 대서양 연어다. 세계 연어 생산량

480만 톤 중 양식 연어가 300만 톤을 차지하며 노르웨이에서 가장 많은 양식 연어(125만 톤)를 생산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낚치나 강도다리와 같은 전통적인 횡감을 선호하고 있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연어나 참치류의 소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연어 수입량은 10년 전 1만 5천 톤에서 지난해 7만 7000천 톤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경북도에서는 변화하는 수산물 소비패턴을 반영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연어를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민간법인(미래아쿠아팜 주식회사)을 공모 선정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연어 양식에서부터 가공·판매까지 많은 노하우를 보유한 노르웨이 닐스윌릭스사와 공동 추진하는 기술협력 협약을 이미 체결했다.

또, 최근 고령화와 어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순환 여과 시스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양식 표본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며 완공 후에는 수산양식 창업자나 한국 해양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술 전문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대서양 연어 1천 톤을 생산하게 되고 2027년부터 배후 부지에 순수 민간투자자금 2000억 원이 추가로 투자되어 시설이 완료되면, 2033년까지 국내 수입량의 14%인 1만 톤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달의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소비자와 시장이 원하는 품종의 지속적인 발굴과 수입대체 어종의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수산업을 경북도가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경북=장영우 기자 ycyw57@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영암군 전남도 등과 김치수출 확대 박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전남도, 해남군, 김치수출기업과 함께 ‘남도 김치 수출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수출되던 김치 완제품은 보관 불편, 익힘 정도 유지 어려움 등 유통상 단점이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양념과 배추를 따로 수출할 판로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영암군은 전남도와 함께 협약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물류비용과 현지 마케팅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마중물 삼아 영암의 우수 농산물인 고구마·배·쌀 등의 수출 판로 개척에도 나서기로 했다.

/영암(전남)=양수영 기자

신안군 돌미역,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안군(군수 박우량)의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됐다.

신안·진도 조간대 돌미역 채취어업은 신안군 흑산군도와 우이도, 진도군 조도군도에서 행해지는 전통어업이다. 맨손, 미역낚 등으로 채취하는 원시적 어업 방법으로 조간대에서 자생하는 돌미역을 공동으로 채취하고 분배하는 공동체 어업으로서, 특히 미역 서식처(미역밭) 관리를 위한 전통 어업기술인 ‘물주기’와 ‘갯다기’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경남도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

경남도는 올해 공공비축미곡 중 ‘건조벼’ 수매를 연말까지 진행, 정부양곡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의 적정 비축규모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전국적으로 40만t을 매입한다. 경남도는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계획에 따라 우리 지역에 배정된 공공비축미곡 7만 4474t을 연내에 신속히 매입할 계획이다. 이 중 ‘산물벼’(건조하지 않고 바로 출하하는 벼) 2만 6070t은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서 11월 30일까지 매입하고 있으며, ‘건조벼’ 총 4만 8404t도 11~12월 동안 매입한다.

/경남=장병호 기자 metrobusan@

함양군 산양삼 가공제품, 수출길 올라

경남 함양군이 지난 6일 홍콩에서 산양삼 가공제품 223만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고, 3일간 현지 판촉 행사 및 홍보를 통해 함양 산양삼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렸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병영 군수를 단장으로 17명으로 구성된 홍콩 시장개척단을 파견, 함양 산양삼 가공제품을 소개하고 청정 함양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수출 협약식에 참여한 제품은 산삼순백, 호박팔차 등으로 전시와 시식을 통해 홍콩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다.

/함양(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비 116억... ‘전국 최다’ 확보

농식품부, 논 타작물 재배단지 지원 교육컨설팅·장비·시설·다각화사업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벼 /전남도

전라남도는 쌀 적정생산 유도,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고품질 생산·유통 기반 구축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 단지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사업비 11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전체사업비 331억 원(국비 154억 원)의 3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다. 전남도 사업비 116억 가운데 국비는 55억 원이다.

전남도의 세부 사업은 교육컨설팅 지원 62개소 18억 원, 시설·장비 지원 13개소에 63억 원, 선별·저장시설 구축을 위한 다각화사업 1개소 35억 원이다.

교육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영체는 개소당 3천만 원(보조 90%), 시설·장비는 콩 등 논 타작물 재배 기반 조성에 필요한 트랙터, 범용콤바인, 파종기 등 구입비를 개소당

최대 5억 원(보조 90%)을 투입한다.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다각화 사업자로 선정된 ‘화순 천운농협(조합장 김준호)’에는 35억 원(보조 80%)을 투입해 콩 전용 종합처리장 및 저온저장시설을 구축한다.

전남도의 전국 최다 사업비 확보는 농식품부 평가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사전 발표회를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컨설팅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농식품부가 중점 추진하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평가 가점을 받도록 한 것도 한몫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양군,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 받아

투자계획 평가 ‘A등급’

영양군(군수 오도창)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112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영양군은 ‘자연을 담고, 청년을 품는, 행복한 고장 영양’을 비전으로 군의 강점인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공교육 및 청년 역량 강화, 출생인 중심 귀촌 유도 및 청년 유출방지 등을 목표로 하는 9개 사업을 발굴해 ‘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에 반영했다.

특히,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시설 기반 확충을 통한 정주인구 유입, 청년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 등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이번 소멸대응기금 112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생활인구 확보를 통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구미시는 중소기업 아세안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지난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방콕)에 무역사절단 10개기업을 파견했다. /구미시

구미시, 中企 아세안시장 판로개척 성과

123건 수출상담·11건 업무협약

경북 구미시의 중소기업 아세안시장 판로개척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구미시는 중소기업 아세안시장 판로개척 지원에 나서 총 123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11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태국(방콕)에 무역사절단 10개 기업을 파견했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자카르타에서 71건, 방콕에서 52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혼합(하이브리드)방식으로도 입해 원거리의 현지 구매자(바이어)와 온라인 상담을 통해 31건의 상담을 추진하는 등 현지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아세안 시장에서 시장 규모 1, 2위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다수의 기업체가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지만 수출 관련 법령·회계·세제 체계가 달라 중소기업의 개별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제품의 시장성이 우수한 지역 중소기업 11개사를 선정, 사절단을 구성(온라인 1개 사)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지 맞춤형 전략추진으로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구매자를 매칭하고 1:1 상담회를 추진했다.

/구미(경북)=유희철 기자 rhc1369@

경주시, 폐철도로 주민편의시설 만든다

임시보행로·주차장 설치

경주시가 철도로 인해 단절된 구간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폐철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시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12월 경주도심을 관통하던 동해남부선·중앙선 80.3km와 철도역 17곳이 폐선·폐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폐철을 활용한 임시보행로·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본격 나섰다.

현재까지 사업비 4억 3700만원이

투입되면서 ▲황성제1·2지하차도 등 임시보행로 8곳 ▲황성성당 옆 주차장 등 임시 주차장 2곳 ▲외동읍 모화리 정비 등 환경정비 1곳 등 폐철 구간 내 주민편의시설 11곳이 조성됐다.

임시보행로 8곳 모두 이동편의를 위해 데크설치, 식생매트, 폐쇄포장 등이 설치됐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메시웬스도 함께 설치됐다. 이 밖에도 황성동 315-2번지 일원에는 임시보행로 조성 외 824㎡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설치된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